

## 보세요 배우세요 받아가세요:

### 모란시장 약장수의 담화에 대한 연행중심적 분석

김 성 인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 1. 연행과 시장

· 언어의 지시적 기능 및 시적 기능을 통하여 의사소통과정 내 미학성과 유희성을 추구하는 언어예술(verbal art)의 연구 흐름은 말 사례(speech event)의 일부에서 전체를 보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전체 행위 중 문법구조의 조절만을 의식하며 정형화된 특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던 텍스트 중심적(text-centered) 관점은 언어 예술의 사건상황 내에서 발생하는 말의 유희적 창조성과 즉흥적 창발성, 연행자의 ‘말’로부터 발생하는 단선적 파급력과 상호작용하는 연행 내 청중의 영향력 등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후 언어예술 연구는 연행 내 순간적인 즉흥성이 전체 연행에 일조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사건 중심적(action-centered) · 연행 중심적(performance-centered) 연구로 나아갔다(Bauman 1975).

· 연행 중심적 연구는 언어예술을 만들어내는 연행자의 ‘말’은 물론, 그 ‘말’의 발생(연행)을 지켜보는 관중과 연행이 위치한 거시적 · 미시적 맥락들을 모두 연구 영역에 포괄한다. 연행 연구는 언어 및 기타 비언어적 · 상황적 요소들의 결합 하에 문화의 핵심적이며 중추적인 특징을 둔 보이며 문화에 대한 반성적(reflexive)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연행을 이루는 언어와 기타 비언어적 · 상황적 요소들의 결합은 연행의 다감각성(multimodality)으로 불리며 미시적 차원에서 연행 중심적 연구를 한층 더 입체화한다. 연행 연구는 전체 사회역사적 맥락 내 연행 발생의 위치성 및 과거 -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행을 통해 구성되는 문화적 의미들을 되짚으며 연행 발생을 이루는 다양한 맥락의 교차가 존재함을 강조한다.<sup>1)</sup>

· 연행 중심적 연구의 대두와 함께 정형화된 비일상적 의례뿐만 아니라 일상의 담화 역시 연구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관심 속에서 시장(市場) 역시 연행중심적 연구를 위한 이상적

---

1) 연행에 대한 거시적 맥락과 연행을 이루는 미시적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상호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 개별 말 사례에 대한 정형화 · 형식화를 통해 특정 집단 내 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통용과 이해를 자연화하는 텍스트화(textualization) 그리고 정형화된 텍스트를 개별 맥락에 적절하게 위치시켜 텍스트와 현 맥락 사이의 관계성을 맺는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는 맥락적 요인들 간의 합성과 연관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개념이다(Bauman and Briggs 1990, Briggs and Bauman 1992 참고).

인 장소로 제안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매매자(賣買者)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과정, 또는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를 뜻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자가 만나 유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이다(정승모 2006: 14). 하지만 시장이 오직 경제적 교환만을 위해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내 개인들의 만남은 소통을 통해 시장을 사회적인 공간을 만들며 이는 경제적 교환 이외에 추가적인 문화적 의미를 발생시킨다. 시장은 다양한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사회적 공간이자 사회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문화의 융합과 소멸의 역동성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Kapchan 1996: 3 참조).

· 사회적 관계성 내 매매가 강조되는 시장 내 상인과 손님들의 상호작용은 언어예술의 연구의 주목을 받아왔다. Kapchan의 경우 모로코 시장 내 여성 상인과 여성 공연인들을 중심으로 시장 내 연행을 연구해왔다(Kapchan 1994, 1995, 1996). Kapchan은 여성 상인들이 가부장적 모로코 사회 내 판매 담화 연행의 순간성을 통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규범적 젠더 모델을 탈피하는 모습을 포착하며 연행을 통한 젠더 정체성의 조작을 보여준다(Kapchan 1995). 국내에서도 시장 언어를 언어 예술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가 존재한다. 오혜경은 하임즈(Hymes)의 의사소통의 민족지학(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을 중심으로 한일 시장 내 언어사용을 통한 일상 담화의 예술성(verbal art)의 실현을 고찰한다(오혜경 2010: 141). 한국과 일본에서 민족지적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수집한 시장 상인들의 여러 가지 말 사례에 대하여 연구자가 나름의 담화 유형을 조작적으로 구분한 점은 연구의 장점으로 돋보인다. 하지만 오혜경은 여러 가지 담화 유형-외침형 담화, 퍼포먼스형 담화, 대화형 담화 등-(오혜경 2010: 142) 중 외침형 담화만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시적 구조를 보이는 텍스트 중심의 분석에 몰두하여 연행의 언어와 사회문화적 의미의 위치 및 결합을 탐색하는 연행 중심의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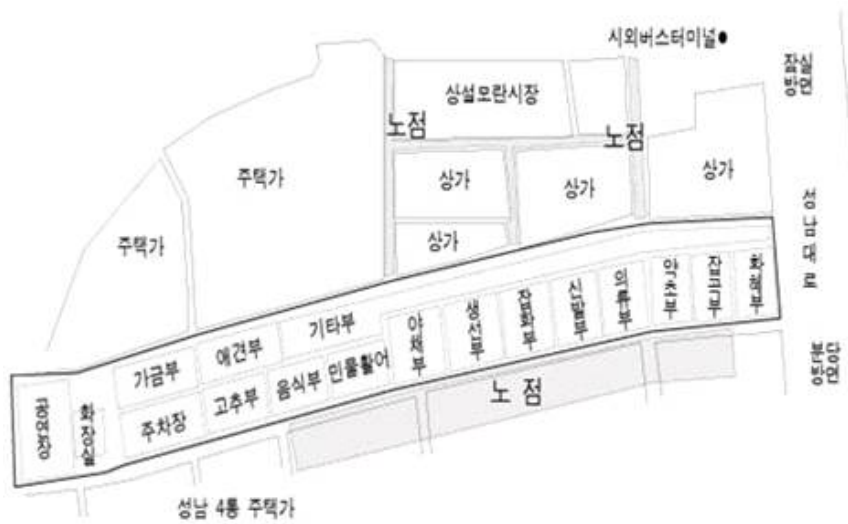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모란민속장 내 여러 상인의 담화 중 약장수의 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직업의 하나로 간주되는 약장수의 판매담화는 전체적으로 강력한 연행적 특징을 드러낸다. 모란민속장의 약장수는 비슷한 음가를 가진 절의 반복과 같은 전통적인 언어예술적 특성을 보여주며 고어, 한어 등 다양한 언어자원을 사용하여 연행 내 자신의 권위를 구축한다. 언어와 더불어 연행을 위해 그가 동원하는 다양한 도구(동물, 사진판넬 등)와 무대 내 움직임, 시선처리, 성량의 조절 등은 연행을 이루는 다감각성을 구성하며 연행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지시킨다. 약장수는 선물 교환을 가장한 제품 판매를 시도하기에 연행에서 선물 교환의 토대가 될 자신과 청중 사이의 관계성을 다지는데 주력한다. 또한 제품의 판매를 위해 그가 제공하는 의학지식은 한국사회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민중차원의 의학담론을 자극하기에 흥미롭다.

## 2. 민족지적 배경: 모란민속장의 약장수

· 본 연구가 진행된 장소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모란민속장이다. 모란민속장은 매 4일, 9일에 열리는 정기 시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5일장으로 손꼽힌다(김진영 2008:

2). 모란역 5번 출구 주변의 주차장은 매 4일과 9일 모란민속장의 장터로 활용된다. 장터는 총 3,300여평의 규모로 상인회 소속의 941개의 점포가 화훼부, 잡곡부, 약초부, 의류부, 신발부, 잡화부, 생선부, 야채부, 음식부, 고추부, 애견부, 가금부, 기타부의 13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다(김진영 2008: 43). 모란민속장은 1960년대 초 형성된 모란장에서 기원하였다. 모란장은 관주도적 시장 경영으로 인해 불거진 행정구역의 변화 및 시장법 실시, 징세 문제 등에 의해 한때 폐쇄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대응을 통해 모란장에서 모란민속장으로 탈바꿈하였다. 모란민속장은 ‘민속’으로 대표되는 비도시성·비현대성·과거를 강조함으로써 민속장으로서의 변화를 지향하였고 상인들은 역사성의 강조와 난장의 재현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만들기’를 해왔는데, 이러한 시장 만들기의 과정 속에는 결국 시장을 도시 속의 과거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김진영 2008: 90).

· 모란민속장의 ‘과거성’의 재생산과 유포는 시장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김진영 2008), 모란민속장을 찾는 소비자들 역시 과거성의 소비에 동참하며 시장의 특징을 공고히 한다. 이들이 인식하는 모란민속장은 물품 구매와 같은 경제적 교환의 동기 이외에 과거에 대한 추억을 상기시키는 공간이기에 특수하다. 장날 장터 주변에 모이는 노점상들<sup>2)</sup> 역시 새로운 ‘시장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그림 30] 모란민속장 상인 배치도(김진영 2008: 43에서 인용)

· 장터가 열리는 날짜에 맞춰 중심 장터의 오른쪽에 위치한 직선형 비포장길에는 노점상인들이 모여든다. 중앙장터로 쓰이는 주차장 옆의 샛길로 들어와 온갖 잡고기들을 전면에 진열해놓은 선술집 구역을 지나면 비포장 진흙길이 나온다. 대략 700-800미터에 달하는 직선형 비포장길은 길의 양 끝에 위치한 각설이 공연단의 상설무대로 경계가 구분된다. 비포장길의 가장자리마다

2) 모란민속장에는 2천여 명의 상인이 출시하고 있는데, 상인회 소속의 상인은 천여 명에 달한다(김진영 2008: 89). 모란민속장날에 나오는 노점상의 수는 대략 천여 명 정도로 상인회에서 추산하고 있지만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노점상의 수는 달라지기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ibid.: 46).

노점 상인들이 가판대가 빼곡히 펼쳐져 있다. 임시로 세운 나무기둥에 비닐 천을 묶어 별을 가린 후 플라스틱 의자 열 개 정도를 원형으로 둘러놓은 조야한 공터에 불과한 무대이지만,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며 설 새 없이 이어지는 각설이들의 ‘이야기’와 노래자락은 몇 십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며 오가는 행인에 치이기 바쁜 중앙 장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각설이 공연단은 자신의 공연을 지켜보는 청중에게 다가가 엿이나 곡물가루, 트로트 모음집 등을 팔거나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공연비’를 팁으로 받으며 수입을 올린다.

· 오직 각설이들만 ‘공연’을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점 구역만의 전체에 적용되는 독특한 판매 수칙이 있다면 오락성을 물품 판매 전략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노점의 상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종의 공연을 보여주고 행인들은 주위에 모여들어 그것을 구경하고 경우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상인들이 주로 구사하는 오락성은 상인들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 여기서 상인들이 구사하는 말은 기존의 준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이 말 행위와 함께 단순히 행인들을 유인하는 호객행위(‘골라골라’)와는 차별화된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말’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는 것은 물론 가판대에서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대부분의 노점 상인들은 부착형 마이크를 달고 끊임없이 손님을 향해 말을 걸고 물건을 직접 보여주며 제품을 설명한다. 일종의 만담을 반복적으로 연행하는 것이다. 상인들은 3-5분에 달하는 짧은 담화를 반복하지만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으로 말하고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는 보양식을 찾아 모란민속시장을 방문하는 남성들의 입맛에 맞춰 남성특화적이라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공구, 남성용 벨트, 남성용 구두, 스포츠 크림부터 말린 지네에 이르기까지 정력증강을 강조하는 각종 민간의학품들이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 노점거리 내 상인들의 다양한 말하기 행위 중 본 연구는 모란시장 내 약장수의 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백년초 글루코사민크림을 파는 약장수는 장터로부터 사람들이 유입되는 길목과 노점 중앙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의자를 원형으로 둘러놓아 관중석을 만든다.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쳐가는 그곳에서 약장수는 기타 썸그라스나 모자, 목욕타월 등의 기타 생활용품을 파는 상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인 20분에서 30분 동안 구경거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모은다. 약장수의 연행은 마치 연극을 상연하듯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그 내용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sup>3)</sup>

· 과거를 재구성하여 민속시장으로서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모란민속장에서 약장수는 특히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존재로 ‘과거성’을 지향한 변화를 꿈꾸는 시장의 성격에 부합한다. 경제적 공간인 시장에서 물자거래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옛장수, 약장수, 각설이들을 ‘구경’하며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약장수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약장수를 통해 과거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소비한다.

3) 약장수는 일정시간 지속되는 정기적 연행을 ‘타임’이라고 불렀으며, 영화의 상영시간을 공고하듯이 연행의 끝부분에 다음 ‘쇼’시간을 청중들에게 공지하곤 했다. “요번에는 많이 안 가져가시네 함 써봐요 진짜 써보면 압니다이 아까 번에는 좀 많이 가져갔는데 요번 타임에는 별로 많이 안 가져가시는 거 같은데” “(연행을 마치며)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30분 후에 열두 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우리 어릴 땐 시장통에서 꼭 이런 공연들을 했었거든. 옛장수도 오고, 서커스도 오고. 옛날엔 그게 구경이었지. 여기에 있는 노인들 다들 옛날 생각 좀 날거야. 그러니 할 일들 없이 이려고들 앉아서 보지. 공연하면 젊은 사람들은 없어. 죄다 노인들뿐이지.”<sup>4)</sup>

이처럼 시장통의 약장수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라는 말과 함께 ‘원숭이를 부리고’, ‘아코디언을 켜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을 모아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는 모습으로 추억되고 이들을 볼 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모란민속장을 찾는다. 한국사회 내 약장수는 언제나 민중에게 유희적 ‘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을까? 언제부터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민간차원에서 조제된 의학약품-보다 그들의 판매행위 내 오락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을까? 장터에서 민중을 울고 웃기며 약을 파는 약장수는 한국의 시장문화의 일부이자 근대 의학과 제약 산업 형성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원 2011: 211 참조).

### 3. 약장수 변천사: 근대 의학의 발달부에서 시장의 광대로

약장수라는 직업의 대두는 조선 후기에 도입된 서양 의학의 영향에 따른 의학담론 변화 및 의학제도의 근대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18세기 중후반 조선은 의학지식의 보급 및 민간의료 인력의 전폭적인 확충을 통해 민간 의약 시장이 확대되었다. 대한제국을 거치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며 한약업자들의 상황 역시 변화를 겪는다. 서양의학의 우월성을 강조한 일본 식민정부에 의해 의료로서의 한의학은 면허와 재학습을 통한 '질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sup>5)</sup> 즉, 한의학은 의료 공간 속에서 서양의학과 경쟁하는 부담 이외에 서양의학에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 공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이꽃매 2006: 227). 이와 함께 서양 약품과 일본의 약품을 판매하는 일본인 매약업자(양정필 2006: 193-194)들의 출현 역시 식민지 조선 한약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하길 표방하는 근대적 의학 정책은 한약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제약의 유통 경로를 뒤바꾸어 놓았다. 한말 한국인 약업자들은 새로운 서양 약품, 외국인 약업종사자의 등장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정책 시행과 같은 근대적인 약업 환경에 직면하며(양정필 2006: 195-196)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다.

당시 한약업자들이 처한 위와 같은 조건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매약(patent medicine)'이다. 근대적 의미의 '매약'이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효능과 용법을 쓴 포장 혹은 설명서를 보고 환자가 직접 사서 쓰는 약이다(동아일보 1927. 10. 9. 3면, 양정필 2006: 196 재인용). 한약업자들은 한의학의 전통 처방을 토대로 당시 새로이 유입되었던 서양 약품을 배합

4) 김진영(2008: 84) 인용. 시장 내 복고적 향수의 소비에 대한 논의는 김진영(2008: 81)의 도시민의 향수를 충족시키는 여가 공간 참조.

5) 특히 의생규칙(醫生規則)(1913년 총독부령 제102호)은 한의학에 대한 식민지배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신동원 2002: 347 참조).

한 '매약'을 통해 제약시장 내에서 우위를 잡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제의 식민 시기에 들어서며 '매약'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제약업은 크게 성장하였다(양정필 2006: 201). 이러한 성장의 후면에는 의료시설과 약약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약약이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의료로 전락했기에 민중이 제약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원인이 존재했다. 공적인 의료복지를 누릴 수 없었던 시절 사람들은 일반의약품에 불과한 '매약'의 소비에 열성적으로 뛰어 들었다. 특히 신문이 '사실'을 전한다고 믿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제약회사가 광고하는 '만병통치약' 광고를 끝이끝대로 받아들였다(이승원 2011: 226).<sup>6)</sup>

· 제약시장의 호황을 목격하며 공급자가 되길 자처한 사람들도 많았다. 일반의약품에 불과한 매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특별한 규제나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제약회사의 소매상들의 수익이 보장되었기에 많은 이들이 제약행상이 되었다.<sup>7)</sup> 이들 중 제약상회 소속에 소속되어 제약행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바로 지금의 '약장수'이다(이승원 2011: 230). 껍쟁이(바이올린)와 손풍금을 켜며 제공한 일부 약장수의 연극은 제약행상의 흥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약행상의 차별화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일상생활로 침투한 약장수들은 조선인들에게 약의 존재를 끊임없이 주시킴(고병철 2003: 299) 서양의 의학담론과 전통적 의학이 뒤섞인 담론들을 전파한다. 하지만 제약 매매 강요와 제약 관련 의료 사고 등이 보도되며 제약업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서양의학 지식의 보급과 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해 제약행상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게 되었다. 제약산업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고 해방 이후 서양의학이 한국사회의 의학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약장수의 역할은 민중을 위한 '근대 의학의 배달부'에서 시골 장터의 '광대'로 변화하였다.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약장수는 노인들을 상대로 재주를 부리고 거액의 불법 건강상품을 강매하는 파는 '뗏다방'범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sup>8)</sup>

· 오늘날의 약장수들은 시장의 구경거리이자 희극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다양화 · 전문화된 의학 시장이 건재한 가운데 일반인들이 약장수에게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그의 조언을 신뢰하여 상품이 아닌 약품으로서 약장수의 판매를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약장수들에게는 요구되는 의학적 지식의 절실함은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소하지만 약장수들은 여전히 민중의 의학담론을 자극하여 제품(약)의 판매를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모란시장의 약장수 역시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청중에게 피력할 만한 한의학적 지식과 서양 의학 지식의 조합과 언어적 · 비언어적 경로를 통한 연행능력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킨다.

6) 과대 약광고와 제약 열풍을 통해 당시의 조선인들은 약의 구원론을 발명하였다. 이러한 약의 구원론은 민간신앙의 질병관과 치유관을 배제하고, 한의학의 일부 지식을 선택적으로 양의학에 적용하여 특유의 근대적 의학담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병철 2003 참고.

7) 1923년의 동아일보가 밝힌 경기도 내 제약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922년 당시 경기도 내에서 매약을 제조하여 파는 사람이 350인, 일본에서 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 150인, 이런 매약을 도매로 사서 판매하는 장사가 2,543명이었다. 그리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할 때 경성에서 만들어 판 매약의 약값은 403,400 여원, 일본에서 들여 온 약값이 396,700여 원, 외국에서 사들인 약값이 700여 원 정도로 도합 800,800여 원에 달했다(동아일보 1923. 3. 21. , 양정필 2006: 205-206 재인용).

8) 사용금지 스테로이드제 넣은 제품판매, 뗏다방 업자 적발(인터넷 국민일보 2012.1.17)

## 4. 연행 분석

본 연구는 2013년 4월 24일 모란 민속시장의 노점거리에서 발생한 약장수의 판매를 연행중심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연구자는 연행을 실시한 약장수의 허락 하에 30분에 달하는 ‘한 타임’을 녹화하였고 녹화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찾아 연행을 관찰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발견한 연행 간의 공통적인 구조와 형식성을 토대로 다음의 전사자료를 연구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자는 연행의 전사와 함께 사진을 통해 연행 순간을 기록하였고, 연행 이후 약장수와의 짧은 질의응답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연행의 분석에 집중하는 4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의료사적으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약장수’란 용어 대신 가치중립적이며 연행 연구의 초점화를 의미하는 ‘연행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연행 분석의 순서는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는 한에서 연구자의 분석에 의해 임의로 나누었음을 밝힌다.

### 1) 이리와 이리오라니깐: 청중을 모으는 연행

까무잡잡한 피부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중년의 남성 연행자는 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무대 영역을 정리한다. 연행자는 길목 중심에서 파라솔을 펴서 그늘을 만들고 성인 5명은 앉을만한 길다란 간이 의자 6개를 원형으로 설치하여 노상 내 연행공간을 분리한다. 간이 의자들은 관중석 역할을 하는데 그 앞 흙 바닥에는 직사각형의 널찍한 명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자신의 연행을 진행한다. 네모난 명석의 가장 자리에는 햄스터가 든 양동이, 기니피그가 든 갈색 상자 등이 2대열 대칭으로 놓여있다. 명석의 뒤쪽에는 차력에서 쓰일 철제 받침대와 차돌, 사진이 붙어있는 초록색 판넬, 판매제품인 백년초 글루코사민크림 상자 등이 널브러져 있고 후면에 주차된 낡은 봉고차의 열린 트렁크 문 사이로도 약 상자가 몇 십 개씩 쌓여있다. 연행장소의 뒷편에 세워진 낡은 봉고차의 조수석에는 연행자 나이 또래의 중년 남성이 앉아있다. 그는 연행에 동참하지 않고 뒷통수만 보이는 채 차에 앉아있다가 연행자가 크림 판매를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시기에 조용히 차 밖으로 나와 돈을 꺼내 흔드는 청중들에게 다가가 돈을 받고 약을 건네준다. 비록 조수 역할을 하는 동행인이 있지만 연행에 끼치는 그의 영향력이 전적으로 부재한 관계로 모란민속시장의 약장수의 연행은 한 개인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연행자는 자신이 데려온 기니피그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명석에 올려놓은 후 그를 마주보는 자세로 꿇어앉으며 연행을 시작한다. 꿇어앉은 연행자는 간이의자에 가려져 지나가는 행인의 시야에서 벗어나있다.

#### (1)-①

(기니피그1을 마주보고 꿇어앉아 있는 연행자. 기니피그1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흔들며 주문을 거는 듯한 동작을 취한다.)<sup>9)</sup>

9) 전사 자료는 연행자의 휴지(pause)를 기준으로 행이 구분되었다.

- 1 욱살바바이수 다라야다라야다사??
- 2 정신빠짝차려
- 3 지금부터 이 동전을 콧잔등에 따악 올려놓을기다잉  
(일어서는 연행자)
- 4 동전을 콧잔등에 따악 올려놓고 손님들 모시면은 배꼽잡고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 보세요잉
- 5 자아 이 동전을 올려놓고 재주하는 거 봐요
- 6 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잉  
-중간 생략-
- (기니피그1 앞에 다시 쭈그려 앉는 연행자. 기니피그1과 정면으로 마주보며)
- 7 사람으로 치면 고등동물이고 너는 저등동물이야
- 8 너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안 그러냐
- 9 그러면 내가 백원짜리 동전을 여기다 따악 코에다 올려놓습니다잉  
(기니피그의 정수리 위에 동전을 얹는 연행자)
- 10이걸 따악 올려놓고 이걸 떨어뜨리지 않고 재주하는 거 보세요잉 히안합니다이
- 11너 이거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거야 알았제  
(동전을 다시 거둬 두 손가락으로 쥐고 기니피그를 향해 흔들며)
- 12이걸 떨어뜨리지않고 너의 부인에게 가는거다 조강지처한테이 알았냐
- 13그럼 지금부터 한 번 보세요잉
- 14아가씨 조강지처가 누군가 모르죠잉 조강지처가 있어
- 15한 번 보실랍니까 함 보세요잉  
-중간 생략-
- (옆에 놓인 다른 상자에 다가가는 연행자)
- 16너 이리 나와봐
- 17손님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니까 정확하게 재주 잘 해야 돼
- 18마누라가 마누라가 돼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 19새끼를 열두마리 낳았어요잉  
(상자에서 기니피그2를 꺼내서 올려놓는 연행자)
- 20이 백원짜리 하나를 따악 짚어지고 외나무 다리 건너갑니다
- 21외나무 다리 건너갈 때
- 22여러분들은 박수만 줌 보내주시면 돼
- 23마음 놓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잉  
(뒤쪽에서 죽도를 하나 가져오는 연행자)
- 24저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이 에 각설이보다 더 재밌어
- 25내가 혼자지만은(.) 재밋게 즐겁게 해드릴게 빨리 오셔잉
- 26그리고 의자는 앉으라고 갖다놓은 거니깐 전부 앉아버리세요잉
- 27빨리빨리 앉으세요 다리 아프니깐 피어안 하게 앉으세요 밀쳐야 본전이니까  
-중간 생략-
- (죽도 앞에 자리잡고 앉아서 기니피그2를 보며 말하는 연행자)
- 28너는 현모양처가 뭐고 알지
- 29가만히 기다려
- 30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영 자식을 잘



(청중을 올려다보며)

31새끼 열두 마리 낳았어요잉

(다시 기니피그를 바라보는 연행자)

32자식을 잘 키우고

33남편 수바리를 잘 해야 된다

34정신 바짝 차려(.) 도망가지 말고

(기니피그1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연행자)

35그리고 너는(.) 조강지처가 뭐고 알지

36나락죽떼기 먹던 생각

37그리고

38알지 조강지처가 무슨 뜻인가

39젊었을 때 고생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바람피지 마라 알았제/

(청중을 올려다보며)

40이놈들 틈 만나면 바람피려 그래요 하하하 틈만 나면 바람피려 그래

41그르니까 바람피지 말고

42내가 저쪽에서 피리를 불면은(.) 너그 현모양처 조강지처한테 가는거야 알았제

43저: 이쁜 아가씨가 동전 하나 줬거든(.) 이걸 따약 짊어지고 대나무다리 건너가는거다

44그 대신에 기분 나쁘다고 탁탁 털면 안돼

(그 순간 동전을 떨어뜨리는 기니피그1, 청중의 일부가 웃고 연행자도 따라 웃는다)

45야임마 털면 어떡하냐 이시끼가 털면 어떡해

46정신 바짝차려야지

(다시 기니피그 정수리에 동전을 얹어놓는 연행자)

47요걸 딱 짊어지고(.) 외나무다리 딱 건너갑시다잉

48그거 한 번 해볼 테니까 박수 한 번 보내줘봐잉 박수 한 번

(박수 치는 청중)

49그런데 인제 엉덩이를 인제 앞으로 하면은 방구를 끼는 자센데

50엉덩이를 밖으로 하시고 다리를 안 쪽으로 하고 팬[편]안히 보세요잉

51에에 팬하게 봐요

52그리고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좀 앉아주시고

53편안하게 좀 앉아주십쇼잉

연행의 시작과 함께 연행자는 우선 청중을 모으는데 집중한다. 그는 직접적인 호객을 하기보다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연행을 구경거리로 제공하며 사람을 모은다. 줄1과 같이 연행자는 마치 불교의 참회진언(懺悔眞言)인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연상시키는 음가들을 조합하여 큰 소리로 복창한다. 연행의 도입부에서 연행자가 조작하는 줄1 ‘옴살바바이수 다라야다라야다사?’는 불경(佛經)을 연상시키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한다. 시장 한복판에서 맞닥뜨린 종교적 의례 언어의 음성적 자극과 기니피그의 시각적 자극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하다. 사람들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연행자를 찾아온다. 모인 사람들은 동물을 마주보고 있는 연행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

연행자는 일어서서 주변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동물이 ‘동전을 올려놓고 재주하는 거 봐요 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잉’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전환한다(줄4-6).

연행 전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조각적인 언어 도구는 연행자가 임의로 채택하는 호남방언이다. 경상남도 하동을 자신의 고향으로 밝힌 연행자<sup>10)</sup>는 연행내외부에서 경상도 억양이 짙은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행의 중간중간 그는 호남 방언을 전환한다. 경상도 출신의 연행자가 실시하는 방언간의 코드전환(code-switching)은 결코 우연적 발생이 아니다. Sherzer가 밝힌 바와 같이, 사회언어학적 목록(sociolinguistic repertoire)들은 말 놀이와 언어예술에 동원가능한 자원으로 존재하며 그들 사이의 활용을 통해 유의미성과 창의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herzer 2002: 90-91). 연행의 초반부에 연행자가 호남방언을 사용한 경우는 줄4 ‘함 보세요잉’, 줄13 ‘그럼 지금부터 한 번 보세요잉’, 줄15 ‘한 번 보실랍니까 함 보세요잉’, 줄23 ‘마음 놓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잉’, 줄25 ‘내가 혼자지만은 재밌게 즐겁게 해드릴게 빨리 오셔잉’ 줄26 ‘의자는 앉으라고 갖다놓은 거니깐 전부 앉아버리세요잉’, 줄48 ‘그거 한 번 해볼 테니까 박수 한 번 보내줘봐잉’, 줄53 ‘편안하게 좀 앉아주십쇼잉’ 등이 있다. 이처럼 연구자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호남방언형’-잉’을 ‘-보세요’, ‘-하세요’, ‘-오세요’와 같은 명령형에 결합하여 주로 사용하는데, 이중 특히 ‘함 보세요잉’은 연행 전반에서 청중들의 주의집중을 위한 담화 표지체(disourse marker)로 두루 사용되고 있었다. 친밀감과 애정을 나타내는 호남 방언의 특유의 표현인 ‘-잉’(주갑동 2005 참고)을 사용함으로써 연행자는 명령형에서 발생하는 청자를 향한 압력을 좀 더 경감시키고 친근감을 표시할 수 있다. 줄19과 줄31 ‘(기니피그가)새끼를 열 두마리 낳았어요잉’ 혹은 줄47 ‘(기니피그가)요걸 딱 짹어지고 외나무다리 딱 건너갑니다잉’과 같이 사건의 후속진행 혹은 연행에 대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호남 방언형이 사용되었는데 코드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중들을 연행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의도하고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청중을 어느 정도 모은 연행자는 모여든 청중들이 묵묵부답으로 연행을 지켜보는 것(‘함 보세요잉’)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행에 참여하도록 정한다. 그 방법은 바로 청중들에게 연행 내 특수한 역할을 지정하는 것이다. 연행자는 청중에게 ‘박수만 쫓 보내줄(줄22)’ 것을 요청하고 청중들은 연행자의 요구에 순응하는데(줄48 ‘박수 한 번 보내줘봐잉 박수 한 번’) 이후부터 청중들의 박수는 연행의 수월한 진행을 위한 적절한 도구로 활용된다. 청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연행자는 비어있는 간이의자에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한다(줄27).

연행자는 기니피그, 고슴도치, 햄스터 등의 동물들을 앞세워 동물들이 다리(죽도)를 건너가는 ‘재주’를 부릴 것이라고 외치며 청중들을 위한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연행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연행자는 청중을 대상으로 동물들의 재주를 선전하며 동물들을 이야기 내 묘사 대상인 인물(Figure)로 지정한다(줄9-10 ‘그르면 내가 백원짜리 동전을 여기다 따악 코에다 올려놓습니다잉 이걸 따악 올려놓고 이걸 떨어뜨리지 않고 재주하는 거 보세요잉 히안합니다다이’, 줄 20 ‘이 백원짜리 하나를 따악 짹어지고 외나무 다리 건너갑니다’)(Goffman 1981). (1)-①에서 흥미로운 점은 연행자가 두 마리의 기니피그를 각각 암수로 역할을 설정하고 한국사회에서 전

10) 이는 연구자와의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이다.

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혼인관계 내 규범적 젠더 역할을 투사하여 말을 건다는 것이다. 암컷 기니피그는 현모양처이기에 ‘가만히 기다리고(줄29)’,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자식을 잘 기르며(줄30)’ 많은 자식을 낳아 아이의 양육에 집중하며(줄31-32) 남편 수발을 들어야 한다(줄33). 반대로 남편에게 연행자는 ‘나락죽떼기 먹던 생각(줄36)’, ‘젊었을 때 고생하던 그 시절을 생각 해서 바람피지 마라(줄39)’야 한다고 충고한다. 연행자가 암수 기니피그를 오가며 진행되는 이 짧은 순간들은 연행자와 청중이 공유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지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연행 내 극중극으로 연행의 오락성이 강조된다.



[사진 1] 기니피그에게 주문을 거는 연행자

동물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연행자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프레임(interactive frame)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연행자와 동물 사이의 ‘이야기’ 내 메시지의 궁극적인 수신자(receiver)는 그들의 연행을 보고 그 메시지를 실제 세계로 끌어와 이해하는 청중을 의미하기에 연행적 프레임(performance frame) 역시 존재한다(Hanks 1990). 연행자 역시 연행 내의 두 가지 프레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연행자는 남편으로서의 규범적 의무를 기니피그에게 읊고 청중과 시선을 맞춘 후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피지 말(줄41)’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연행자의 메시지의 수신자는 기니피그일 수도 있으며, 중년·노년 남성이 대다수인 청중일 수도 있다. 이 장면에서 궁극적인 수신자는 불분명해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애매성은 연행의 유희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1)-②

1 빨리오세요잉 못봤다고 서운해하지말고

(녹음 잘림 - 양동이 안 동물소개, 양동이에서 고슴도치를 꺼내서 청중 가까이로 던지는 연행자.)

2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라니까

(일부 청중: 아이 놀라라)

(연행자쪽으로 다가오는 고슴도치)

3 그래 박수한 번 보내줘봐요

(박수치는 청중)

(기니피그에게 재주를 시키기 전에 먹이를 줘야한다고 말하는 연행자. 무대 뒤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와 무대 전면에 다시 쓴다.)

4 일단 저 재주하기 전에 이거 먹어라

(기니피그 상자에 상추를 던져 넣는다)

5 재주하기 전에 먹으라잉 알았제

6 거 뒤에 있는 분들 빨리오세요잉 여 또 서운해가지고 하지 말고 제가 모시는 시간은 딱 십분  
입니다잉 그리고 비는 자리에는 전부 앉으세요잉 다리 아프니까

- 생략 -

(일어서는 연행자, 막대기로 동물들을 가리킨다)

7 지금부터(.) 내가 이 동물을 피리붙어서(.) 이 남편이 사내가 남편이 부인한테 갑니다 예 함  
보세요 아내 부

8 이 건너갈 때(.) 박수 많이 보내줘야 합니다

9 예 회장님 좀 앉아주세요 한 사람만 예

10 빈자리 좀 막아주세요잉

11 예 좀 있으면 사람 많이 옵니다

12 앉으라 그러면 마음 놓고 앉으십쇼 부담 갖지 말고 어르신

13 자 회장님

14 아줌마 여기 좀 바람을 좀 막아줘

15 자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되니까

16 아 거기 사장님 좀 앉아주세요 몇 사람만

17 거기 사장님 이쪽을 좀 바람을 좀 막아주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

동물에게 말을 걸며 궁극적으로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호작용 프레임과 연행적 프레임의 중첩은 연행 내 역할극뿐만 아니라 동물을 연행 내 '재주'부리기를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1)-②의 경우 프레임간의 복합성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동물을 향해 연행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대화는 연행의 도구인 동물은 물론 연행을 준비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연행을 보는 청중들을 향해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행자는 '준비됐지', '정신 바짝차려'와 같은 문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동물들을 다루기 위한 이러한 외침들은 동시에 성공적인 연행 진행을 위해 스스로 거는 주문이자 기합이다. 동물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행자가 내뱉는 말들은 청중에 의해 연행적 프레임 내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동물을 향하여 소리치는 연행자의 말(줄2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라니까')은 동물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의 청각을 자극하며(청중: 아이 놀라라) 연행 판으로 그들을 유인한다. 동물을 자극하는 연행자의 소리 그리고 연행자가 보여주는 동물들은 연행에 대한 청중들의 기대를 부풀린다. 청중의 무리가 커지자 연행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간이의자에 청중들을 앉히기 시작한다.<sup>11)</sup> 연행자는 청

11) 연행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연구자가 연행('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자 연행자는

중을 향해 무작정 앉으라고 요구하기보다 ‘다리가 아프니까(줄6)’, ‘빈자리를 막기 위해(줄10)’ 자리에 앉아달라고 우회적으로 부탁하였고, 의자 사이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막(줄 14)’아달라며 의자의 공석을 채운다. ‘사장님’, ‘회장님’, ‘어르신’과 같이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 어와 함께 제시되는 간접적인 부탁에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연행자의 요구대로 행동했다. 동물들의 ‘재주’를 홍보하며 연행자의 의도대로 많은 청중들이 모였지만, 연행자는 기니피그에게 먹이를 주며 ‘재주’를 보여주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번다. 기니피그에게 갑자기 먹이를 주며 연행 내 새로운 화제를 던지는 연행자의 의도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2) 배우세요 병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잉: 건강과 치유의 연행

청중들은 동물의 재주를 기대하며 모여들었지만 연행자는 동물 핑계를 대면서 청중이 기대한 연행을 지체하며 연행의 흐름을 바꾸어 ‘진행한다(줄4).’

(2)-①

-중간 생략-

1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모시는 이유는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해라 이진데

2 이 동물이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3 백 원짜리 동전을 따약: 콧잔등에 올려놓고 내가 저쪽에서 피리를

4 건너갈 때 박수만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말아요 자 진행합니다잉 빨리 먹어라잉

(차력도구가 놓여 있는 철제 받침대를 앞으로 끌고 온다)

5 제가 무술을 하기 위해서 저고리를 좀 벗겠습니다

6 자 함 보십쇼잉

(윗도리를 벗는다. 반팔차림의 연행자. 차돌을 받침대 위에 얹고 무술 시범을 보인다. 그 후 차돌을 들어 돌의 단단한 정도를 청중에게 직접 보여주고 설명한다.)

-중간 생략-

7 요거 한 번 멋지게 잘라볼게요

8 그리고 제가 인사 드립니다

9 본래 그 지

10 머리를 삭발해야 하는데(.) 머리를 좀 길렀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11 제 이름은 안정국<sup>12)</sup>입니다

12 무술을 종합 합쳐가지고 한 사십 일단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 제 신분을 밝힙니다

13 여러분 여기 오신 어르신들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하시고 복 많이 받고 어 백수상수[白壽上壽] 이상 건강하십시오

14 안녕하십니까

(절을 하는 연행자)

(박수치는 청중들)

15 그러면 공갈 안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동물 재주하기 전에 여기 조그만한 돌이 올려있는데/

‘사람들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12) 연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16 이게 어디서 주سن 거냐면 제주도에서 주سن겁니다 제주도에서/

17 저 제주도 벚꽃축제 하는데 갔었거든요(.) 자 함 보십쇼잉/

(기합과 함께 맨손으로 차돌격파하는 연행자)

(박수치는 청중들)

(일부 청중들: 어후)

연행자 역시 청중들이 왜 한자리에 모였으며 무엇을 요구하는지 감지하고 있다(줄1 ‘내가 여러분 모시는 이유는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해라 이건데’). 연행자는 다시 한 번 동물의 ‘재주’를 강조하며 청중의 기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연행 내 청중의 역할을 상기시킨다. 연행자는 연행의 진전을 알리며 기니피그를 내려보고 연행을 재촉한다. 이는 마치 연행자 자신이 아닌 기니피그 때문에 준비되었던 연행이 지연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줄4 ‘건너갈 때 박수만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진행합니다잉 빨리 먹어라잉’) 동시에 연행자는 명석 뒤쪽에 놓여있던 철제 받침대를 전면으로 끌어온다. 연행도구의 배치를 재배열하며 연행자는 외투를 벗어 자신의 외양 역시 변화시키고 ‘함 보십쇼잉(줄6, 줄17)’라는 집중표시의 답화 표지와 함께 연행자는 무술시범을 보여준다. 연행자가 급작스럽게 제공하는 시청각적 자극-갑자기 등장한 차돌과 죽도, 연행자의 달라진 옷차림과 무술시범, 차돌 격파의 격렬한 동작 및 소리-은 아무런 이질감 없이 청중들의 관심을 기니피그에서 연행자 자신으로 옮기는데 성공한다. 연행자는 연행 시작 후 10여분이 지난 그 시점에서야 자기소개를 한다. 연행자는 자신을 지켜보는 청중들에게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말을 건네며 말을 통해 행동(action)의 수행을 이루는 언어의 수행성(performativity)과 함께 자신을 소개한다(줄13). 청중들은 이전과 달리 연행자가 아무런 지시(‘박수 함 주쇼잉’)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기소개와 무술 시범에 박수로 화답하고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며 급작스럽게 바뀐 연행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 (2)-①부분 이후 연행자에게서도 그리고 청중에게서도 기니피그 또는 동물의 ‘재주’는 전혀 언급되지 않으므로 연행 내 초점화 대상의 이동이 안정적으로 안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②

-중간 생략-

1 요걸 제가 이번에는 주먹으로 내리쳐서 격파 한 번 해볼게요 어르신들

2 이런 말이 있죠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

3 갈수록 흥미가 진진합니다잉

4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5 칠정[종]칠금[七縱七擒]이라(.) 일곱 번 놔아줬다 일곱 번 잡아들이는 거 알잖아요

6 이거 내가 마음대로 때리면 마음대로 나가버립니다

7 요거 한 번 잘라볼게요 박수 한 번 보내주십쇼

(박수치는 청중들)

(절하는 연행자)

8 사람이 배워서 남 줄 것은 하나도 없죠잉

9 옥불탁[玉不琢]이면 불성기[不成器]하고 인불학[人不學]이면 여맹맹자행[여명명야행(如冥冥夜行)]

이라 구슬을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10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11 불효부모사후회[不孝父母死後悔]이라 주자십회[朱子十悔]이란 책을 딱 보면은 불효부모사후회

12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잘 해야 돼

13 요거 멋지게 함 잘라볼 테니까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박수치는 청중들)

첫 번째 차돌 격파 후 청중들의 박수를 받은 연행자는 두 번째 차돌 격파에 도전하기를 공지(줄1)하고 ‘점입가경이라 갈수록 흥미가 진진합니다(줄2-3)’라며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첫 번째 성공 이후 연행자는 칠종칠금을 인용하여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마음대로 때리면 마음대로 나가버립니다(줄5-6)’라고 말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수행성과 그를 뒷받침하는 신체 능력을 통해 연행자는 적극적으로 연행 내 전지전능한 자신의 권위를 구축하기 시작한다(줄4-6). 이를 위해 연행자는 고어(古語)·한어(漢語)·사자성어 등의 언어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연행을 운용한다. 고어·한어·사자성어 등은 중년·노년층이 대부분인 청중에 특화되어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연행을 진행하는 하나의 언어적 차원의 전략이다. 형태와 더불어 내용면에서도 청중특화된 면모가 엿보이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청중들에게 주자십회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부모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며 청중의 위세를 높여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줄11-12). 한어와 옛말을 사용하는 언어전략은 연행 내 청중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청중에 대한 연행자의 존경을 드러내며 연행자와 청중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동시에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고어를 인용함으로써 연행자의 지적 능력과 권위가 강조되기도 한다.

더불어 연행자는 예기(禮記)와 태공(太公)의 문장을 인용하여 사람의 배움을 강조한다(줄8-10). 사실 연행자가 말하는 ‘옥불탁[玉不琢]이면 불성기[不成器]하고 인불학[人不學]이면 여맹맹자행[如冥冥夜行]’(줄9)은 부분적으로 음가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고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줄9의 전반부인 ‘옥불탁이면 불성기하고’는 유교경전의 오경(五經)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나오는 “玉不琢(옥불탁)이면 不成器(불성기)요, 人不學(인불학)이면 不知道(부지도)니라”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道)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배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줄9의 후반부 ‘인불학이면 여맹맹자행’은 주나라 문왕(文王)의 스승인 태공(太公)의 문장인 “人生不學(인생불학)이면 如冥冥夜行(여명명야행)이니라”에서 빌려온 것인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어두운 밤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역시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행자의 ‘독특한’ 고어 사용은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으며 원 텍스트의 권위를 상황적 맥락으로 전가하며 연행자의 신뢰성과 권위의 구축을 위해 충실히 활용된다.

(2)-③

-중간 생략-

1 자 이기 보세요:

- (간이의자에 앉아있는 청중 앞에 쭉그려 앉는 연행자)
- 2 자 사장님 손 한번 내밀어봐요
- 3 밀쳐야 본전이니까 함 내밀어봐요 괜찮으니까  
(손을 내미는 청중)
- 4 잘 보세요
- 5 배우세요잉
- 6 그리고 내가 선물 하나씩 줘니다잉 운동선수들이 쓰는 거  
(손을 내민 청중을 향하여)
- 7 절대 사람 때리지 마세요잉 급소가 많으니까
- 8 삼백육십다섯군데 급소가 있습니다잉<sup>13)</sup>
- 9 절대 사람 때리면 안됩니다 집에 계시는 부인분들 사랑하고 때리지 말아요이  
(앉아있는 청중의 몸을 손으로 짚으며)
- 10여기가 풍지[風池]<sup>14)</sup>여기가 함복인?이야 여기가 인당[印堂]<sup>15)</sup>이고 여기가 정명[晴明]<sup>16)</sup>여기가 백회[百會]<sup>17)</sup>여기가 숨통입니다 찢러빠리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 11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 12합곡[合谷]<sup>18)</sup>이란 이 부분을 갖다가
- 13오늘 점심때 밥을 먹고 없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이쭈시개 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너댓번 찢러뿌려
- 14그러면 얹힌 것이 트리미가 나면서 쪽 내려갑니다
- 15박수 한 번 보내줘봐  
(박수치는 청중들)
- 16그 다음에 혈압[혈압]으로 딱 쓰러졌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함 해봐 밀쳐야 본전이니까  
(무대 중앙에 놓인 대나무 막대기를 집으며)
- 17이기웁니까 사군자중에 매란국죽[梅蘭菊竹]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비라고 하는건데
- 18마안약에 혈압으로 쓰러졌을 땐 어르신들
- 19믿거나 말거나 함 해보세요잉
- 20발바닥을 보게 되면 용천[湧泉]<sup>19)</sup>이란 급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바닥을 보여준다) 용천도 몰라  
여러분들이 중간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되가지고 여기가 용천입니다아:
- 21이 부분을 갖다가 남좌여우[男左女右]라 사정없이 남자는 왼쪽을 갖다 내리쳐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연행자)
- 22한 두 세 번 내리쳐요(.) 치고 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조금 주물러주면 끝나
- 23모르니까 그제 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쥬 아시겠습니까

13) 실제 사람 몸에 존재하는 경혈의 수는 361개이다(이병국 2005 참조).

14) 풍지(風池) : 풍지는 후두부(後頭部)의 하단에 있는 것으로 두부중심선 후발제에서 위로 한 치되는 곳에 있는 독맥(督脈)의 풍부(風府)와 수평이 되는 높이에 있다(ibid.: 157)

15) 인당(印堂): 두 눈썹 사이, 즉 양미간(兩眉間)의 중점이 인당이다(ibid.).

16) 정명(晴明): 눈 안쪽 가장자리 위쪽으로 눈 앞머리를 뜻한다. 침관을 대고 살며시 눌러보면 쪽 들어간다(ibid.: 120).

17) 백회(百會): 백회는 전발제에서 뒤로 5치에 있다(ibid.).

18) 합곡(合谷): 합곡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의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서 제2중수골쪽 함요처가 합곡이다(ibid.).

19) 용천(湧泉): 용천은 발바닥의 족심부(足心部)에 있다. 발바닥의 중심선을 3등분하여 발가락쪽에서 첫 등분되는 곳이다(ibid.: 135).



(‘네에’ 대답하는 청중들)

24대답 좀 크게 하요 박수 한 번 보내주십쇼

(박수치는 청중들)

25그리고 여기 허리 아프신 분 계시면 손 한 번 들어봐 내가 선물 하나 그냥 줄 테니까

(연행자가 거듭 물으며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손을 드는 몇몇 청중들.)

26어르신 아릅니까

27잠깐만 이리오세요

28가지고 와요 가지고 영원히 안 아프게 해드릴게

(무대 옆에 청중이 앉을 의자를 마련해주는 연행자)

29옳로 편안하게 앉으십쇼

(무리에서 나와 앞에 놓인 의자에 앉는 청중)

30전부 앉으세요잉 지금 이 장소에 나오지 말고 아프신 분들은 전부 앉아요잉

31어떤 사람은 내가 선물 준다니까 사람 꼬이는 약장산줄 알아

32아닙니다 구경하세요잉

두 번째 차돌 격파를 준비하던 연행자는 갑자기 청중에게 다가가 이목을 환기시키며(줄1) 연행 내 장면을 전환한다. 연행자는 한 청중에게 직접 예시를 보여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청중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청중들은 연행자에 의해 주도되는 연행을 ‘구경’하며 박수를 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더욱 나아가 연행자와 함께 연행에 직접 포함되어 연행을 함께 구성해나가게 된다. 일부 청중에게 직접 적용해보는 의학지식의 실연이 연행 내 청중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20)</sup>

연행자가 한의학의 경혈 용어를 사용하여 청중들에게 의학 지식을 제공하며 그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학지식은 연행자의 권위 구축에 일조하며 연행자와 청중의 관계를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가와 그를 배우는 제자의 관계로 전환시킨다. 연행자가 강조하는 ‘잘보세요(줄4)’와 ‘배우세요잉(줄5)’은 이러한 관계전환을 강조한다. 연행자는 청중에게 의학지식을 제공하고 선물까지 수여할 것을 선언(줄6)하는데 이와 같은 연행자의 일방적인 선물은 연행자와 청중의 관계를 판매자와 잠재적 구매자라는 경제적 관계에서 선물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로 전환시킨다.<sup>21)</sup>

‘믿져야 본전(줄3, 줄19)’임을 강조하며 연행 참여에 대한 청중의 부담감을 줄이는 연행자는 선물을 미끼로 자신의 의학지식을 체험해볼 청중들을 탐색하는 동시에(줄25) 선물을 통한 청중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에 대하여 스스로 약장수와 비교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을 절대적으로 부정한다(줄31). 이는 연행자가 제공하는 의학지식과 총체적 연행이 상기할 가능성이 있는 ‘약장수’ 즉, 현대 한국사회 내 약장수로 대표되는 사이버 의학담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언급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행자는 ‘영원히 안 아프게 해준다(줄28)’며 자신의 의학적 지식

20) 물론 청중들의 연행 내 포섭 역시 일방적으로 연행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청중들이 진정한 능동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청중들의 연행 내 역할 확대는 연행자의 연행 조절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21) 하지만 연행자의 선물과 선물로 형성되는 청중과의 관계는 진정한 관대함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선물 행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답례 요청 권리와 같은 이해타산적 동기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선물을 통한 제품 판매 전략은 이후 계속된다.

을 과장하여 홍보하기도 한다. 연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한 청중의 자원을 받아 한 연행자를 명석 옆에 놓아둔 의자에 앉힌다.

(2)-④

-중간 생략-

(의자 옆에 쭈그려 앉아서 청중과 시선을 맞추는 연행자)

1 어르신 어느 부분이 아픈니까 다리를 한 번 걷어보십서

(바지를 걷는 청중)

2 이걸 알아야 합니다잉

3 관절로 고생하는 분들 제 설명 잘 들으세요잉

4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그냥 병원 말 듣는 게 아니고 판단을 잘 해야 해

5 병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잉

(연행자가 청중 무릎의 슬개골을 직접 짚으며 무릎 보호운동 방법을 보여준다. 청중들은 연행자의 시범을 보는데 집중한다.)

6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분들 위해서

7 이거 팔아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8 체육관 하나 짓는데 이거 선물 하나 드리러 왔어

(무대 뒷편으로 이동하는 연행자. 스포츠 크림을 하나 꺼내 온다. 크림 상자에 백년초 글루코사민 크림이라고 써져 있다.)

9 주로 국가대표 박지성이 같은 요런 사람들이 쓴 겁니다 스포츠인들이 쓰는 겁니다

10내가 이거 그냥 하나씩 줄 테니까 박수 한 번 보내줘 봐요

(박수치는 청중들)

11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써 보셔야 합니다

12믿어야 돼

13여러분들 써보고 아 쓸만한 거구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집중을 알리는 담화표지와 함께 시작되는 (2)-④는 무릎이 아픈 한 개인 청중을 무대로 불러내어 이를 진단하는 연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의학지식의 전달을 기준으로 변환되었던 연행자와 청중의 관계(전문가-제자)는 다시 한 번 변화한다. 연행자는 청중을 '영원히 안 아프게 해줄' 의사가 되어 청중의 무릎을 문진한다(줄1). (2)-④에서도 상호작용 프레임과 연행적 프레임의 중첩이 발생하며 메시지의 전달 대상이 복수적으로 적용된다. 연행자는 무릎이 아픈 청중 한 명을 무대로 이끌어 그의 상태를 보고 그를 위한 처방을 내린다. 연행 내 개인 청중을 향한 연행자의 말은 개인 청중뿐만 아니라 연행의 바깥에서 그를 지켜보는 전체 청중에게 인식되는데, 연행에 참여하는 개인과 연행자 사이의 상호작용 프레임은 전체 연행적 프레임의 부분에 속함으로써 결국 다른 청중들에게도 의학지식을 동시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무릎 부위의 해부적인 설명 및 생활 시 유의점에 대하여 말하며 청중들의 주의가 집중된 상황에서 연행자는 무대 후면에서 스포츠 크림을 하나 가져온다. 연행의 앞뒤정황을 살펴본다면 연행자가 가져온 스포츠 크림이 경제적 이윤을 취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겠지만 연행자는 극구 '팔아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줄7)'라고 강조하며 '(자신이)체육관

하나 짓는데 이거 선물 하나 드린다(줄8)’고 말한다.<sup>22)</sup> 연행자는 심품에 대한 선물성-‘그냥 하나 줄(줄10)’것-과 상품의 품질-‘국가대표 박지성같은 스포츠인들(줄9)’이 쓰는 것-을 강조하며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유도한다(줄9-10). 이와 함께 연행자는 청중들에게 ‘직접 여러분이 써 보셔야 안다(줄11)’며 믿음을 강조한다(줄12 ‘믿어야 돼’). 여기서 연행자가 청중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연행자가 연행 내 청중과의 관계 속에서 구축해온 자신의 권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지닌 연행자가 추천하는 제품에 대한 믿음을 뜻할 것이다.

(2)-③과 (2)-④에서 연행자가 청중에게 제공하는 의학지식은 동서의학담론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의학담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에 흥미롭다. (2)-③에서 연행자가 주로 제공하는 의학정보는 한의학의 혈자리이다. 혈(穴)은 특정 경맥의 순행경로 위에 위치한 점으로 각각의 경맥은 인체의 여러 장부(臟腑)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혈과 경맥 및 장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인체의 여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이들 혈을 자극함으로써 경맥과 장부의 기능을 조장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침구치료의 기본(이병국 2005: 16)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행자가 제시하는 혈 자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신체에 대한 동양의학적 인지를 내포하고 있다. 신체 각 부위의 형태와 구조와 같은 해부학적 인식 또는 몸에 대한 시각적 표상이 특징적인 서양의학과 달리 동아시아의 의학은 경락이라는 몸의 연결망과 장부들의 상호관계가 강조된다. 몸은 부위별로 대상화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조직하는 관계의 망이며 시스템인 것이다(강신익 2007: 76).<sup>23)</sup> 하지만 연행 내 한의학적 지식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보다 현대에 가장 표준화된 보급형 의료체계인 서양의학의 지식과 함께 융합되어 전달된다. 즉 연행자는 한국사회의 민중차원에서 팽배한 동서절충적 의학담론을 자극하는 것이다.

(2)-④에서 나타나는 무릎이 아픈 환자에 대한 연행자의 진단 내에서도 두 의학담론이 혼재되어 발생한다. 연행자는 무대 위 청중의 무릎 통증에 대하여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그냥 병원 말 듣는 게 아니고 판단을 잘 해야 해 병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라며 동양의학이 강조하는 경험으로서의 몸, 즉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는 서양의학적 담론인 해부학적 지식을 토대로 환부를 설명하기도 한다. 동서양 의학담론의 공존과 협력적 치료는 연행자의 진단에서도 계속 드러난다.<sup>24)</sup>

(2)-⑤

-중간 생략-

(청중이 외투를 벗고 정자세로 앉는다. 연행자는 그의 어깨와 목을 짚어본다)

22) ‘이거 팔아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체육관 하나 짓는데 이거 선물 하나 드리러 왔어’에 나타난 인과적 이해불가능성(unintelligibility)은 연행의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23) 물론 동아시아의 의학도 오장육부와 척추의 삼관(三關)처럼 몸의 일부를 차별적으로 분리하지만 이는 해부학적 구분이라기 보다 전체 관계망 내 기능적 표상의 표시에 가깝다고 강신익은 지적한다(강신익 2007: 89).

24) 오랫동안 인류학자들과 국제 보건전문가들은 의료체계들-특히 과학적 체계와 전통적 체계-을 서로 결합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 지향의 관찰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는 제3세계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의료체계의 치료를 종종 동시에 받고 있어도 그 어떤 모순도 느끼고 있지 않다. 환자들은 가능한 많은 의견과 충고를 바라며, 특정한 병을 다루는 방식이 자신들의 생각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포스터&앤더슨 1994: 348).

- 1 할머니 아줌마 함 봐봐요.(.) 이쪽에 함 봐봐요 이쪽을 함 보시라니까
- 2 이 쪽이 살짝 부은 거 같죠(.)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거야
- 3 자 함 보십쇼잉
- 4 일단계는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잉
- 중간 생략-
- (청중들을 둘러보며)
- 5 이 운동 비법입니다잉
- (청중의 목을 치는 연행자)
- 6 목에서 빨라지는 소리가 막 나죠잉
- 7 예 가만히 계십쇼잉
- (스포츠 크림을 집어드는 연행자)
- 8 이기 뭐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팔아 목을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 9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 때리면 나옵니다 이게
- (청중의 어깨에 크림을 발라주는 연행자)
- 10자 보세요잉 좀 이따 함 보세요 이 분이 아픈가 안 아픈가 보면 알아요

앞서 무릎에 통증을 느끼던 청중에게 크림을 발라준 후 연행자는 어깨가 아픈 청중을 찾아 그를 무대로 이끈다. 앞선 진단 사례와 같이 연행자는 우선 환부를 건어 살피며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앞서 무릎의 진단에서 서양의학적 해부학 지식이 동원된 것과 달리 (2)-⑤에서는 어깨를 보며 병을 진단하는 동양의학적 진단방법을 보여준다.<sup>25)</sup> 연행자는 환부의 증상을 보고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청중들에게 환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줄1-2) 관심을 집중시킨다. 진단 후 그는 스포츠 크림으로 치료한다(줄8-10). 연행자는 이 장면에서도 역시 비상업적 목적을 강조하며(줄8 ‘팔아목을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청중의 환부에 직접 발라 처치하면서 다른 청중에게 사용법을 보여준다. 청중의 무릎과 어깨에 실시한 스포츠 크림의 사용 시범이 일 단락되면서 연행자는 스포츠 크림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한다.

- (2)-⑥
- 중간 생략-
- 1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 주는 이유는
- 2 이기 저한테 한 십만개 정도가 저한테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내 하나씩 드리는거야
- 3 스포오츠 인들이 쓰는 마사지 크림입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다 드릴게
- (박수치는 청중들)
- 4 나를 못 믿는 사람은 다리 걷고 다 걷어봐 내가 발라줄 테니까 발라봐야 아는 거니까
- (무릎에 스포츠 크림을 발랐던 무대 앞 청중을 향해)

25) 오랜 임상경험을 지닌 한약업사들의 한약처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실시한 박경용 역시 환자들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한 병증진단을 한의학의 특징으로 지목한다. 집중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오랜 경험지식을 갖는 한약업사들은 환자에 대해 관형찰색하고 병증을 물어봄으로써 직감적으로 병을 알아낸다. 이는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체득된 집중 기술로서, 기계장비에 의존하는 양의학과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박경용 2005: 435- 437).

5 어르신 닻지 마시고 스며들 때까지 문질러야 합니다 어디 바르니까 시원합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

6 박수 함 보내주십쇼  
(박수치는 청중들)

7 거 공갈안쳐 공갈안쳐

8 짜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잉

9 그리고 특히 어디 좋냐면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막 쑤시고 마비되고 다압 걸리고 어깨 아픈 데  
10축구차다 딱 부딪힌 데  
11운동하다 발목 뻐 데  
12요런 데  
13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14무슨 말인지 알겠죠타 박수 함 보내줘봐  
(박수치는 청중들)

15그리고 남자분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잉 믿거나 말거나 데  
(뒤편에서 커다란 사진이 붙은 판대기 몇 개를 가져오는 연행자)

16남자분들 소변이 좀 시원찮게 나오지요  
17이거 함 보세요 이거이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렇습니다  
(청중을 향해 사진을 보여주는 연행자. 비뇨기관 단면도가 붙여져 있다.)

18여러분 요즘 보면은 전립선에 좋다고 전립선???하라고 막 선전 나오고 그러죠  
19그거 광고비가 얼마 줄 알아요 방송국에서 반 이상 피가 버려요  
20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 하얀 기름 덩어리뻬에 그래  
21믿거나 말거나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22이걸 좀 짜가지고 잘 때(.) 팔자부분에다가 싹싹싹싹 마사지를 해줘  
(동작으로 바르는 시늉을 하는 연행자)

23그러면 싹 스며들면서 기분이 참 좋고 시원합니다  
24믿거나 말거나 일주일 정도만 해줘봐 서서히 자기자신도 모르게 ??같이 서서히 소변하고 섞여서  
빠져버린답니다 설명 끝났어요  
25인자 이게 어디 좋은 고 알겠죠타  
26청중: 네  
27아시겠습니까  
28청중: 네  
29무조건 허리다리 관절 어깨 팔다리 저리고 마 인대가 늘어나고 수술을 했는데 후후증있고 이런 데  
해주세요 이 발라주세요이

연행자는 청중의 직접 체험을 통해 스포츠 크림의 효과와 사용법을 청중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난 후에야 그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크림의 정체를 밝힌다(줄1-2). 하지만 여전히 제품을 판매하려는 상업적인 목적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하나씩 드리는 거'라며 자신의 선물성을 강조하며 본래의 의도를 감추고 있다. 또한 연행자는 무릎에 스포츠 크림을 발랐던 개인 청중의 의견을 물어 그 대답을 연행에 활용하며(줄5-6) 스포츠 크림의 효능을 반증한다. 연행자가 조절하는 연행의 즉흥성(improvisation)은 '거 공갈안쳐 공갈안쳐 짜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줄7-8)'라는 말처럼 청중의 우연적인 참여를 통해 나타난다.<sup>26)</sup>

청중을 통한 스포츠 크림의 효능 확인 후 연행자는 반복과 병렬(repetition and parallelism)을 통해 스포츠 크림의 사용법을 홍보하기 시작한다(줄7-8). 반복과 병렬은 언어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으로 손꼽히는데(Sherzer 2002: 106) 특히 병렬의 경우 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수사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Sherzer 2002: 108). 연행자의 발화 역시 이러한 부가적 효과를 의도한다. 반복과 병렬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줄9-13이다. 해당 담화에서 나타나는 반복은 이전 담화와 다르게 과장된 어조와 큰 성량을 동반한다.

9 그리고 특히 어디 좋냐면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막 쭈시고 마비되고 다암 걸리고  
어깨 아픈 데  
10축구차다 팍 부딪힌 데  
11운동하다 발목 뻐 데  
12요런 데  
13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줄13에서 연행자는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막 쭈시고 마비되고 다암 걸리고'처럼 연결어미 '-고-'로 끝나는 짧은 절들을 연속으로 배치하고 이를 빠른 어조로 말하면서 나름의 리듬을 만들어 낸다. 이어지는 '어깨 아픈 데/ 축구차다 팍 부딪힌 데/ 운동하다 발목 뻐 데/ 요런 데/'의 연결어미 '-ㄴ데-'로 끝나는 절에서 연행자는 각 절의 '-데'에서 음을 하락시키며 음악적 예술성을 발생시킨다. '축구차다 팍 부딪힌데'와 '발목 뻐 데'에서는 입술을 붙였다 떼며 소리를 내는 무성음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예술적 특성의 담화 후에 연행자는 청중의 반응을 요구하며 적재적소에 박수를 위치시키며 일련의 수사를 마무리한다(줄14).

그 후 연행자는 남성이 대부분을 이루는 청중을 의식하여 남성의 비노기와 질환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남자분들 믿거나 말거납니다(줄)'이라며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한 후 연구자는 비노기와 단면도와 같은 시각적 자극을 추가하며 티비 광고에 나오는 주류 의약품과 자신이 가지고 온 스포츠 크림을 비교한다. 연행자의 스포츠 크림은 '선전에 나오는(줄18)', '광고비 때문에 비싼(줄19)' 약보다 훨씬 저렴하며 간단한 처치로(줄22-23)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줄24)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품 설명 후 연행자는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청중에게 연거푸 물어보며(줄25 '인자 이게 어디 좋은 고 알겠쥬', 줄27 '아시겠습니까') 청중의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한다.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그는 스포츠 크림 사용법을 다시 복창하는데(줄29) 이 경우에도 '허리다리 - 팔다리', '했는데 - 했는데', '해주세요 - 발라주세요' 와 같이 동일 음가가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 3) 협조 좀 해주십시오: 판매의 연행

스포츠 크림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특수한 질병을 언급하며 청중들의 구매 필요성을 선전한

26) Sawyer(2000)는 청중의 참여가 특정 장르의 즉흥성을 구성하는 중요 차원의 하나라고 적고 있다.

연행자는 이제 스포츠 크림 상자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선물 하나 드린다’고 선전했던 전과 달리 연행자는 제품과 화폐의 교환 의도(‘목적’)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윤추구의 의도와 함께 이전과 다른 방식의 권위 구축 전략도 나타난다.

(3)-①

- 1 그래서 제가 이번 타임에 마이는[많은] 못 드려요 한 이십명만 드릴게요  
(마사지 크림 상자를 앞으로 옮겨오는 연행자)
- 2 제가요 한 이십 명만 드리는데
- 3 이 비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4 그 목적이 뭐어나
- 5 이십[의십]하지 말고요 들으세요
- 6 여기 함 보세요 내가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 7 여러분들 저 얼굴 알 겁니다 여기 보면  
(후면에서 판넬들을 가져와 보여주는 연행자. 첫 번째 판넬을 청중에게 보여준다. SBS 프로그램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화면이 붙어있다)
- 8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저 얼굴 반[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판넬을 보여준다. 영화포스터와 절에서 찍은 남성들의 단체사진이 붙어있다.)
- 9 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무술 영화에 옛날에 한 번씩 과거에(.)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제 얼굴
- 10여기 보면은 제 은사님 뒤에 보면은 유명한 석인보?스님인데 돌아가셨죠 이기 겁니다 두??  
이런 사람들이 저를 인정합니다  
(세 번째 판넬을 보여준다. 도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무대 위에서 무술을 공연하는 사진이 붙어있다.)
- 11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 미국인데 안정국이 칠단으로 나와있죠
- 12내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전국을 두루 살피면서 돌아 다니는데
- 13경기도 안양이란 곳이 있어요
- 14안양유원지 관악산 있고 산막동이란 데가 있는데  
(네 번째 판넬을 보여준다. 넓은 지도가 붙어있다.)
- 15그마 땅이 크진 않습니다 쪼만한 땅이 하나 준비 됐는데
- 16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뜻인데  
(판넬을 땅에 던지고 상자에서 스포츠 크림을 꺼내서 청중에게 보여준다)
- 17여기 다 내 체육관 하나 짓는데
- 18내 이거 하나 그냥 줄 테니까
- 19이거요 이십오일 쓰는 거
- 20내 체육관 짓는데
- 21기와 한 장만 협조 좀 해주십쇼 그런 분들 이해 가시는 분들 박수 한 번 만 보내주세요  
(박수치는 청중)
- (허리 숙여 큰 절하는 연행자)
- 중간 생략-
- 22그니까 돈을 떠나서 기와 한 장이라 그러면 얼마짜리 쓰냐 오만 원짜리 쓰냐 아닙니다 피해주면 안돼 어르신들한테

23기와 한 장에 만 천 원짜리 쓰는데 내가 천 원짜가 없어버릴게요  
 24그래서 만 원짜리 하나 준비되신 분들은 내가 서비스 하겠습니다  
 25내가 두통씩을 줄 테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들 손을 바짝 드세요  
 26돈 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안 그래요

연행자는 스포츠 크림이 든 상자를 무대 전면으로 가져와 판매를 시작한다. 연행자는 '비싼 (줄3)' 스포츠 크림을 '마이는 못 드리(줄1)'기에 자신이 가져온 상품의 희소성을 앞세운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연행자는 스포츠 크림의 선물이 무조건적인 이타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줄3-4 '근데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어냐'). 연행자가 본격적으로 스포츠 크림을 통한 청중과의 거래를 설명하기 전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줄5)'라는 말과 함께 후면에 서 가지고 온 판넬을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연행에서 그가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력과 경제 상황을 공개한다. 연행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청중들에게 시청각적 경로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며 특히 판넬을 통한 시각적 정보는 연행자의 과거를 보여주는 증거로 청중들의 설득력 구축을 돕는다.<sup>27)</sup> 연행자의 개인사와 개인정보들은 유명 TV프로그램, 유명 스타, 미국 공연 등의 권위 있는 상징자본들과 결부하며 연행자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한다.<sup>28)</sup>

이어서 연행자는 다시 스포츠 크림을 판매하는 자신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간다. 연행자는 네 번째 판넬의 지도를 보여주며 준비된 땅에 체육관 건설에 일조할 것을 청중들에게 부탁한다. 연행자는 청중들에게 체육관 건설을 위해 아주 약소한 힘을 보탬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기와 한 장(줄21)'으로 비유되며 설명을 마친 후 그는 박수를 유도하며 청중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청중들이 자신의 말처럼 박수를 치자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한다. 연행자가 요구하는 바는 연행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선물(스포츠 크림)에 상응하는 청중의 성의 표시, 곧 체육관 건설을 위한 미약한 경제적 '협조(줄21)'이다. 하지만 연행자는 청중이 그를 돕고 싶은 만큼 '협조'하기를 방임하기보다는 명백한 최소제한선을 정한다(줄22-24). 특히 청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연행자이지만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기와 한 장에 만 천 원짜리 쓰는데 내가 천 원짜가 없애(줄23)'며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성금의 최소액수를 정한다. 성금의 형태를 띤 돈 '만원'은 스포츠 크림 2개와 교환되기에 사실 연행자는 스포츠 크림의 가격을 책정한 셈이다.

이 장면에서 독특한 점은 연행자가 이전에 베풀었던 선물성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청중의 답례를 공공연히 요구하며 청중과의 관계성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물의 답례는 소수의 청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맛보기' 스포츠 크림뿐만 아니라 그가 연행에서 보여준 오락성 및 약간의 의학 지식에 의거하여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연행자는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홍보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를 계획하기보다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줄21)', '서비스하겠습니다(줄24)'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가 두통씩을 줄 테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들 손을 바짝 드세요 돈 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안 그래요(줄25-26)'라며 청중

27) 하지만 판넬에 붙은 사진들은 모두 흑백으로 복사된 종이의 형태로 빛이 바래고 구겨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다.

28) 연행자가 밝히는 개인정보 역시 연행의 일부로서 진실 혹은 거짓과 상관없이 극적 장치로 이용된다. 점을 엮두에 두어야 한다.



을 자극한다.

(3)-②

1 무조건 허리 다리 아프고 손발이 저리고 쭈시고(.) 걸리는 사람들

-중간 생략-

2 허리 다리 아픈 사람들 담이 걸리고 어깨가 아픈 사람들 무조건 아픈 장소에다 문질러 주세요

3 예 그리고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선물 받아주세요잉

(만원을 들어 구매욕구를 표시하는 청중들)

4 예 고맙습니다 기와 한 장값 체육관짓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잉

5 내가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도:독놈 같으면 이거 오만원씩 받아버려

6 우리 내가 건강 하라고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7 허리 다리 관절 어깨 팔다리 저린 사람들

8 요번에는 많이 안 가져가시네 함 써봐요 진짜 써보면 압니다이

9 아까 번에는 좀 많이 가져갔는데 요번 타임에는 별로 많이 안 가져 가시는 거 같은데

10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손발 저린 사람들

11자 몇 사람만 더 말씀하세요잉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12늦게 오신 분들 가까이 오세요 내가 짜서 발라드릴게이

13이걸 하나 뜯겠습니다

14허리다리 아픈 사람 손발 저린 사람들 관절 아프고 어깨 아픈 사람들

15자 믿거나 말거나 함 써봐요

16마안: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17나 같으면 그냥 아 저 젊은 사람 체육관 하나 짓는데 그냥 만원 줄수도 있어 안그래요

여러분들

앞서 (3)-①의 후반부 ‘내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전국을 두루 살피면서 돌아 다니는데…안양 유원지 관악산 있고 산막동이란 데가 있는데…쪼만한 땅이 하나 준비 됐는데…티끌 모아 태산이란 뜻인데 여기 다 내 체육관 하나 짓는데…내 체육관 짓는데’에서 미약하게나마 드러났던 언어의 병렬 구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적 기능성은 호객에 유용한 언어 도구로 사용된다. 줄 1-3 ‘무조건 허리 다리 아픈 사람들 담이 걸리고 어깨가 아픈 사람들 무조건 아픈 장소에다 문질러 주세요 예 그리고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선물 받아주세요잉’는 (2)-⑥의 반복 및 병렬을 통한 스포츠 크림 사용법과 일맥상통한다. 본 장면에서 시적 구조가 나타나는 담화는 ‘무조건’을 기준으로 두 절로 나눌 수 있다. 1절의 경우 ‘사람들’을 반복하며 어미를 상응시키고 2절의 경우 ‘주세요’와 ‘가세요잉’의 ‘-세요’를 반복한다. 각 절은 대구법을 이루며 병렬구조를 이루는데 실제로 연행자는 특유의 음율을 넣어 말하며 음악적 예술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시적 구조가 강조되는 담화는 노래의 후렴구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중간마다 연행자는 스포츠 크림의 판매를 부추기는 말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며 제품을 홍보한다. 앞서 분석한 줄1-3외에 추가적으로 줄7, 줄10, 줄14가 후렴구 역할을 하며 일상담화와 다른 운율감을 보였다. 그 사이마다 연행자는 물건 홍보, 판매 장려, 협조(구매) 부탁 등을 첨가한다. 연행자가 직접적으로 스포츠 크림 판매를 시작하자 모여있던 청중 중 일부는 슬그머니 일어나 연행장소를 떠나거나 적극적

으로 손을 올려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연행자는 반복을 이용하여 물건 홍보를 계속하고 이를 지켜보던 청중들이-빈손으로 혹은 제품을 사들고- 떠나가며 연행이 자연스럽게 갈무리된다. 간이의자가 비면 연행자는 다음 연행을 예고하고 제품이 든 상자를 정리 하거나 제품과 맞바꾼 돈을 썼다.



[사진 2] 제품 판매와 함께 파하는 연행의 모습

#### 4. 결론

본 연구는 익숙한 시장 담화를 연행의 한 사례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연행중심적 분석을 시도하여 그 구조를 밝혀보았다. 모란민속장의 약장수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를 자신의 연행지점으로 정하고 연행 내 다양한 다감각성의 동원을 통해 지나가는 행인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자신의 연행을 지켜볼 청중을 모은다. 약장수는 연행 내에서 음악적 예술성이 강조되는 절을 반복하며 청중들에게 유희성을 제공하고 고어 및 한자를 사용하여 중년층 노년층 청중들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공고히 한다. 고어와 한자의 사용은 연행자가 제공하는 한의학 용어와 함께 의학 지식을 제공하는 연행자의 권위를 강화하며 약장수를 시장의 관대에서 준 의학전문가로 변모시킨다('보고배우세요잉').

30분에 달하는 연행은 연행자 혼자 독립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연행자는 연행의 진전과 함께 자신의 연행을 지켜보는 청중들에게 알맞은 역할을 부여하여 연행에 참여시킨다. 연행 내 청중의 역할은 지켜보기(함 보세요잉) - 박수치기(박수 함 주십쇼) - 마사지 크림 체험하기(믿거나 말거나 함 해보세요잉) - 연행자의 선물에 대한 금전 답례하기(협조 좀 해주십쇼잉)의 순서로 확장된다. 하지만 청중의 참여는 연행자의 연행 내 조작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

되며 청중의 참여는 연행 내 상호주의 프레임과 연행적 프레임의 중첩을 통한 연행적 효과의 발생을 목표로 하는 도구적 활용에 불과하다. 연행자는 개별 연행마다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이러한 즉흥성을 ‘일(연행)’의 성공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일’에서 사람들을 잡는 노하우를 묻는 연구자에게 연행자는 ‘이건 순간순간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누구나 아무나 보고 배우는 게 아니야. 임기응변이 중요해. 순간적으로 하는 거지’<sup>29)</sup>라고 대답했다. 연행이 후반부로 치달으며 연행자는 직접적으로 스포츠 크림의 효능을 홍보하며 상품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하지만 여전히 화폐와 상품의 교환을 선전하기보다는 자신이 베푼 지식 및 선물의 답례로 체육관 건설에 협조를 부탁하는 간접적인 판매전략을 취한다. 여기서는 TV프로그램 및 무술 영화 출현 경험 등의 상징자본이 신뢰성 구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Ahearn은 연행과 같은 담화 사건(discursive event)은 언제나 특정 역사적 순간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Ahearn 1998: 79). 연행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연행의 발생 역시 개별적 위치성에서 떼어져 상상될 수 없을 것이다. 약장수의 연행의 발생과 그 연행 내 드러나는 사회·문화·역사적 의미들 역시 마찬가지로. 약장수가 취하는 의학담론들은 연행이 한국의 근대 의학을 둘러싼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교차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약장수의 연행 분석에서 나타나는 의료에 관한 신념과 실천 그리고 의료처치 및 의료체계에 대한 변별적 선택은 과거와 현재의 인간행동과 건강 및 병의 차원 사이의 생물적 문화적 상호관련성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 흐름 내에서 포괄적으로 기술·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의료인류학(포스터&앤더슨1994: 23)과 맞닿아있기도 하다.

약장수의 판매 전략에 대한 언어예술적 접근을 시도한 본 연구는 연행자의 말과 연행을 충실히 분석하였지만, 연행자가 연행의 또 다른 중심축이라고 밝힌 청중과 그들에 의한 연행 내 변화와 효과를 제대로 밝히지 못 했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연행자가 밝힌 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연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약장수의 연행 구조 분석에서 더 나아가 약장수가 강조하는 즉흥성이 창발하는 순간과 약장수 - 청중 사이의 통제와 불가항적 역동성을 살피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시장 내 연행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사려 된다.

## 참고문헌

강신익, 2007,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서울: 휴머니스트.

고병철, 2003, “일제시대 건강 담론과 약의 구원론-《매일신보》 약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29) Sawyer가 제시하는 즉흥성 발생의 주요 차원들이 약장수의 연행에서 대거 발생한다는 점 역시 본 연구대상의 주요 특징이다. Sawyer가 제시한 연행 내 즉흥성 창발의 구성 차원은 다음과 같다: 경직화(Ossification), 청중의 참여(Involvement of audience), 장르 변화에 대한 저항(Resistance of genre to change), 장르 변화에 대한 불변성(Permanence of genre change), 문화적 가치평가(cultural valuation), 지표성과 메타화용론(Indexicality and metapragmatics), 장르 정의의 범위(Breadth of genre definition) (Sawyer2000: 122-123)

- 『종교연구』 30: 85-310.
- 김진영, 2008, “성남 모란민속장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 “모란시장의 변화와 의미재구성에 관한 연구,” 『중앙민속학』 15: 61-97.
- 그레이버, 데이비드 (서정은 역), 2003,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울: 그린비.
- 네틀턴, 사라 (조효제 역), 1997,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경용, 2007, “한약업사 (韓藥業士)의 ‘한약 처방’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한국민족문화』 29: 419-455.
- 산동원, 2002,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한의학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333-370
- \_\_\_\_\_, 2004,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서울: 역사비평사.
- 양정필, 2006,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매약’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학』 15(2): 189-209.
- 오혜경, 2010, “일상담화에 보이는 언어의 예술성과 창조성-한국과 일본의 도심대형시장의 담화사례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7(3): 139-161.
- 윤교임, 2002, “미국의 구술예술 연구 : 연행중심적 접근과 구술시학의 민족지,” 『구비문학연구』 15: 251-284.
- 이병국, 2005, 『경혈을 찾는 요령』, 서울: 침코리아.
- 이승원, 2011, 『사라진 직업의 역사』, 서울: 자음과 모음.
- 이종찬, 2004,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꽃메, 2006, “식민지시기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약 이용,” 『의사학』 15(2): 227-236.
- 정승모, 2006, 『한국의 전통사회, 시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주갑동, 2005, 『전라도 방언사전』, 서울: 수필과 비평사.
- 포스터, 조지 M. · 바바라 G. 앤더슨 (구본인 역), 1994, 『의료인류학』, 서울: 한울.
- Ahearn, Laura, M., 1998, “A Twisted Rope Binds My Waist: Locating Constraints on Meaning in a Tij Songfest,”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8(1): 60-86.
- Bascom, William R., 1955, “Verbal Art”,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8(269): 245-252.
- \_\_\_\_\_, 1975, “Verbal Art as Performance,” *American Anthropologist* 77(2): 290-311.
- \_\_\_\_\_, 1986, *Story, Performance, and Event: Contextual Studies of Oral Narra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an, Richard, & Briggs, Charles. L., 1990, “Poetics and Performance as Crit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 59-88.

- Briggs, Charles L., & Bauman, Richard, 1992, "Genre, Intertextuality, and Social Power,"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2(2): 131-172.
- Goffman, Erving,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nks, William F., 1990, *Referential Practice: Language and Lived Space among the May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pchan, Deborah A., 1994, "Moroccan Female Performers Defining the Social Body,"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2-105.
- \_\_\_\_\_, 1995, "Performanc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08: 479-484.
- \_\_\_\_\_, 1996, *Gender on the Market: Moroccan Women and the Revoicing of Tradi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awyer, Rober K., 2000, "Improvisation,"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9(1-2): 121-123.
- Sherzer, Joel, 2002, *Speech Play and Verbal Ar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인터넷 참고자료

모란민속장 인터넷사이트

<http://www.moranjang.org/>

국민일보, "스테로이트제 넣은 제품판매, 몇다방 업자 적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326817530&cp=nv>

#### 부록 전사기호

볼드 강제

(.) 짧은 휴지

: 발음 연장

↗ 말끝을 올리며 종결

() 연행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추가 안내

???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

[] 발음 정정

## ■ 논평 I

박 재 형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왕한석(2009:8)은 한국의 언어에 대한 민속지의 작업을 통해 크게 3가지의 언어 인류학적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적 인지(cultural cognition)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민족언어학(ethnolinguistics) 혹은 민족과학(ethnoscience)으로 부르는 영역과, 언어와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 또는 사회구조와의 관련성에 대한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의 영역으로 좁게는 델 하임즈(Dell Hymes) 식의 의사소통의 민족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으로 부르는 영역과, 언어와 예술 및 놀이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언어 예술(verbal art), 즉 민속학(folklore)영역에서의 관심으로 총 세 가지이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중 마지막 영역에 속하는 논문으로, 한국의 약장수의 언어 사용을 바우만(Bauman), 고프만(Goffman) 등의 이론적 틀로 분석한 논문이다.

약장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희소성을 가지며, 그들의 언어 행위를 연행으로 풀어내려는 연구자의 안목은 탁월하다. 50대~60대의 중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약장수들을 만나봤을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사생 팬이 되어 그들을 따라다니고 바람잡이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약장수들은 중년들의 일상과는 결코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자는 그 중 특히 약장수의 언어행위에 주목했다. 약장수의 발화는 다양한 언어자원과 다감각성을 통해 구성되므로 연행을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모란 시장의 약장수들의 언어행위는 남성특화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약장수들이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연구자는 '3절 약장수 변천사'에서 약장수에 대해 통시적으로 검토하며 약장수에 대해 생소하게 느낄 사람들에게 대해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한약업자들은 전통 처방을 토대로 당시 새로이 유입되었던 서양 약품을 배합한 '매약'을 통해 제약시장 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 매약에 대한 유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약장수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기에 다양한 연행들이 부수적으로 공존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지금은 '광대'취급을 받기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연행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등장하는 연행은 크게 3가지로 이뤄진다.

### (1) 청중을 모으는 연행 (2) 건강과 치유의 연행 (3) 판매의 연행

(1)에서는 관심을 끌기위해 불교의 참회진언을 연상토록 하는 연행, 하동 출신의 연행자이지만 호남 방언으로 쉽게 코드전환(code-switching)하는 현상, 동물들이 재주를 넘는 것을 보여주는 고프만(Goffman)식의 연행, 애매성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의 프레임(interactive frame) 등에 대해 연구자는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남 방언으로의 코드전환이다. 하동은

지역 분류상 경상남도에도 속하지만 실제로 전라남도에도 매우 가까운 지역이다. 왕한석의 한국의 언어민속지 전라남북도 편(2010)과 경상남북도 편(2012)을 전체적으로 대조해 볼 때 일반적으로 호남지역의 언어 예술, 언어의 풍성함 및 다양성에 대한 감각이 경상도에 비해 훨씬 더 발달했다는 부분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연행자는 의도적으로 호남 방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연구자는 놓치지 않고 있다. (2)에서는 차들 격파 등의 퍼포먼스(performance), 사람의 배움을 강조하는 연행, 의학지식을 제공하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연행 등에 대해 연구자는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의학지식 제공과 전문성의 강조는 연행자와 청중의 관계를 전문가와 제자의 관계로 전환시키며 경제적 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분석을 연구자는 제시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 크림을 팔 때는 비상업성을 강조하며 시범적인 사용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인정에 의존하기도 한다. 결국 연구자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연행의 핵심에는 본질적으로 이들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이며 그것이 사회적 관계로 포장될 때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연구자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3)에서는 최소 액수를 통한 흥정의 방식이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것들을 정리해 볼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약장수의 언어 예술의 연행에 대한 연구로 우선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짚고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언어 예술 분석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 2) 본 연구는 사라져 가는 동시에 옛 향수를 자극하는 약장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관련 선행연구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3) 한국의 언어 민속-언어인류학에 속하는 언어 예술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국 언어 인류학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적절하게 부합한다. 4) 의료에 관한 신념과 실천 및 처치, 체계에 대한 변별적 선택은 과거와 현재의 인간행동과 건강 및 병의 차원 사이의 생물적, 문화적 상호관련성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 흐름 내에서 포괄적으로 기술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스터&앤더슨 식의 의료인류학까지 접점이 있다. 이런 수준 높은 글에 매우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짧게 리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앤쓰로피아 1집 편집자들과 선뜻 투고를 해준 연구자 김성인 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왕한석,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 : 서편』 .

## ■ 논평 II

배 연 주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김성인 학형의 “보세요 배우세요 받아가세요: 모란시장 약장수의 담화에 대한 연행중심적 분석”은 모란민속장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크림 판매 약장수의 연행에 대한 정교한 언어적·민족

지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논문이 취하는 언어예술에 대한 연행중심적 접근은 언어예술 텍스트를 사회 맥락과 유리된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즉 누가/언제/어디서/누구에게/누구와 함께 등의 상황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 ‘전통’ 민속시장에서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약장수의 연행에 대해 세밀한 언어적 분석을 행함으로써 시장의 논리가 선물의 논리로 위장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약장수는 수행적 주문과 언설, 고어체 한문 구절, 시적 병렬 기법, 전통적 젠더 규범, 서구 및 토착의 혼합된 의학적 지식, 선물과 기부의 논리 등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약 판매의 연행을 하며 또한 그 연행 자체를 판매한다. 본 논문이 보여주듯이 시장은 단순히 상품이 오고가는 곳일 뿐 아니라 말에 의해 운용되고 말 자체가 생산/소비되는 풍부한 언어적 공간이다.

이 리뷰에서는 논문에서 좀 더 명확히 짚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정도 다루려고 한다. 첫째로 연행의 즉흥성이다. 결론에 이르러 본 논문은 각주 29를 통해 연행의 즉흥성을 발생시키는 여러 차원들이 본문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경직화(Ossification), 청중의 참여(Involvement of audience), 장르 변화에 대한 저항(Resistance of genre to change), 장르 변화에 대한 불변성(Permanence of genre change), 문화적 가치평가(cultural valuation), 지표성과 메타화용론(Indexicality and metapragmatics), 장르 정의의 범위(Breadth of genre definition)”. 그러나 글의 구성면에서도 이 부분은 본문의 핵심으로 끌고 와서 더 치밀하게 논의했어야 하지 않느냐 한다. 또 어떤 부분이 약장수 연행 장르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즉흥적인 부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황적·맥락적 요인이 다른 두 연행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연행 사례 하나만으로는 장르의 경직화와 변화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다.

둘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지점은 청중의 행위성이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청중의 참여는 연행자의 연행 내 조작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며 청중의 참여는 연행 내 상호주의 프레임과 연행적 프레임의 중첩을 통한 연행적 효과의 발생을 목표로 하는 도구적 활용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언설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연행자인 약장수는 청중의 참여를 그의 연행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일견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중 참여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 시각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에서의 이 같은 문장은 본 논문이 서론에서 밝혔듯 연행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언어예술에 대한 연행중심적 접근을 취하겠다고 말한 것과 상충된다. 과연 청중은 한 번 관객석에 앉은 순간부터 약장수에 의해 통제되고 휘둘리는 수동적인 대상인가? 아니면 약장수에 의해 지시(cue)되는 연행의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비로소 약장수 연행으로 만들어 주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주체인가? 또 한 가지, 본 논문은 ‘청중의 참여가 도구적 활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문장 바로 다음에 이러한 청중의 참여가 개별 연행마다 달라지고 연행의 즉흥성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만일 청중에게 아무런 행위성이 없다면 개별 연행이 즉흥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조차 전혀 없을 것이다.



셋째로 본 논문이 좀 더 논의를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점은 말 자체를 사물(thing)로 파악하는 말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language) (Heller 2010) 과정이다. 약장수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도 사실 스포츠크림이라는 물건 자체보다도 그것을 팔기까지의 연행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약장수 연행이라는 구경거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인용한 타 연구의 인터뷰 발췌에서도 “민속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릴 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크로노토프(chronotope) (Bakhtin 1981: 84; Silverstein 2005: 6에서 재인용)로서 약장수 연행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통·시장이라는 특정한 시공간 개념과 연결되는 이 같은 연행이 없다면 동일한 스포츠크림이 과연 ‘약장수의 약’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체육관 건축 기부로 위장된 돈을 냈을 때 이들은 단순히 스포츠크림이라는 물건에 대해 대금을 지불한 것일까 아니면 약장수 연행에 대해 공연값을 지불한 것일까?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저자가 약장수 공연을 본 청중에 대해서도 직접 인터뷰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행 막바지에 약장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관객 중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뜨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사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냥 자리를 뜬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것이고 약을 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들은 각기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좀 더 알아보았다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소소하게는 각주 1의 텍스트화(entextualization) 정의가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이 혼재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이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이 많은데 특히 저자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서 이러한 문장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약장수가 연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술할 때처럼 쉽고 편한 마음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어려운 말로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는 사례와 섬세한 분석이 돋보이는 논문이다. 이 리뷰에서도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본다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주문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약장수 연행 사례에 대한 언어적·민족지적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진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례와 이론을 엮어 나의 분석이 보다 넓은 이론적 함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훈련해가야 하는 작업일 것인데, 그 기본은 이 논문에서처럼 민족지적 사례 자체를 우선 면밀히 들여다본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akhtin, Mikhail M.,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Michael Holquist (ed.),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Heller, Monica, 2010, "The Commodification of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9: 101-114.
- Silverstein, Michael, 2005, "Axes of Evals: Token versus Type Interdiscursivity,"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15(1): 6-22.

## ■■ 저자 답변

김 성 인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본 연구는 ‘약장수’의 존재를 둘러싼 역사성을 돌아봄으로써 약장수에 대한 문화적 지식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과거회귀적인 특수한 공간인 모란시장 내 약장수의 상업적 말하기를 연행 중심적 시각에서 민족지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약장수의 말은 이미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사회적인 의미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공고한 장르(genre)로 만들어져 전해져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수의 독자들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혹은 ‘이 약 한 번 잡셔봐!’라는 문장 자체로 이 문장의 발화자의 성격 및 발화가 발생하는 말 상황을 눈앞에 훤히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이들은 위의 문장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흉내 낼 수 있을 것이며, 의식하지 못 하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발화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 및 반응을 보일 지도 모른다(“안 사요!”). 연구자는 조선 말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장수의 생존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들의 변화 그리고 그에 동반하여 약장수에 대한 문화적 기대들이 달라져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모란시장의 약장수가 자신의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상품’을 변듯한 대안적 의약품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연행에 성공하게 되는 방법을 보이고 싶었다. 이러한 시도 하에서 모란시장의 ‘연행자’는 약장수들의 고전적인 연행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소품과 차력, 이해불가능한 음성학적 효과, (판매 담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복과 병렬 등을 사용하는 동시에, 고어와 부분적 한의학적 지식을 과시하며 연행자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구축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배연주 학우는 연행 중심적 연구에서 연행의 상황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연행의 즉흥성과 청중의 행위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미달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 내에서도 연행자가 적극적으로 청중을 자신의 연행에 초대하고, 청중의 참여와 반응으로부터 연행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청중을 연행의 한 부분으로 영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행자는 연행의 행에서는 연행자는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람을 많이 끄는 것’을 연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연행의 진행과 전개에 대한 연행자 스스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 지위를 부여했다(“이게(약장수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연행자는 청중을 연행자가 계획한 극의 순서에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 가능한 일회적 자원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관찰한 연행 사례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 나온 바와 같이 청중의 참여는 연행 초반 행인들을 직접 지목하며 청중을 모으는 경우 또는 제품 체험에 한정 되었으며, 연행자가 계획한 역할 놀이에 등장인물만 식의 고정된 통일성이 나타났다. 연구자 역시 연구 환경의 제약 및 연구 사례의 특수성에 의해 연행과 청중의 다변성을 온전히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며 연구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박재형 학우는 모란시장 약장수의 말을 대상으로 한 연행을 다루는 본 연구에 대하여 한국의 언어 인류학 내 연구 관심 분야와 연계하여 본 연구 주제의 학문적 위치를 밝히고, 내용의 측면

에서 간결하게 요약한 후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정리해주었다. 연구 내부의 세계에 집중하는 박재형 학우의 성실한 해제는 언어 예술 및 언어인류학이 낯선 독자들에게 훌륭한 안내서로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단, 박재형 학우의 리뷰 중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는데, 그는 본 연구의 주제 탐색에 대한 부분이다. 약장수에 대하여 중년층<sup>30)</sup>이 느끼는 일상적 친숙함에 의해 본 연구 주제가 발탁된 것은 아니다. ‘약품 소매상’에서 ‘광대’, ‘사기꾼’으로 변천해온, 약장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의 거시적 변화, 그러한 변화와 함께 달라져온 약장수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같은 미시적 맥락 및 모란 시장의 상품 판매와 같은 사례 내 말 상황 내 맥락 등 다양한 맥락의 접점들의 교차가 ‘약장수’를 연구하게 된 주요 동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상은 박재형 학우에게 드리는 부가적 설명이자 연구에 대한 미연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의 첨언이기도 하다.

글의 구조와 이론적 다양성은 물론 표현 기교의 미숙함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주고, 연행의 민족지의 시도를 격려해준 배연주 학우의 애정 어린 세심함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연구자와 리뷰자의 협동적 성장은 앤스로피아가 마련해준 건설적인 비평의 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박재형 학우가 제시해 준 한국 언어인류학 내 본 연구의 위치 및 분에 넘치는 연구 의의는 지속되는 노력과 발전되는 연구 결과를 통해 되갚아야할 빛이라 생각된다. 분주한 코스워크 도중 귀한 시간을 할애하며 애써 준 박재형 학우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30) 사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모란 시장의 주요 소비층은 장년층, 노년층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박재형 학우가 밝힌 것처럼 약장수에 대하여 ‘중년들에게 익숙’하고 ‘(중년들의) 일상에서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수식하는 것은 자칫 자의적인 주장처럼 비취질까 우려되기도 한다.